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소식

◆ 모임

1. 사라 전도회 총회 / 12일(주) 2부 예배 후 101호
2. 마리아 전도회 총회 / 12일(주) 2부 예배 후 506호
3. 리브가 전도회 총회 / 12일(주) 3부 예배 후 502호
4. 가브리엘 절기찬양 연습 / 18일(토) 오후 1시 - 6시 2층 분당

◆ 알림

1.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 다음 주일(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 감사주일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여섯 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0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기간: 11/5-12
 - *세례교육: 4주교육(11/12, 11/19, 11/26, 12/3) 낮 12시 20분 609호
 - *세례문답: 12/3(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 *신청접수처: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9시-17시30분	403호	유아부	11시-12시10분	706호
유치부	11시-12시10분	702호	유년부	11시-12시10분	701호
초등부	11시-12시10분	601호	중등부	9시-10시	501호
고등부	9시-10시20분	101호	청년부	15시30분-17시	601호
신혼가정부	12시30분-14시	606호	사랑부	10시30분-11시30분	603호
영어성경부	10시10분-11시	802호	소망부	10시10분-11시	102호
신앙강좌부	12시15분-12시55분	802호	새가족부	10시10분-14시	602호
세례교육부	12시10분	609호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야),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영,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민·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통,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서 울 교 회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위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빈들에서 만난 풍요 ”

■ 마태복음 14:13-21

하나님은 공허의 세계를 충만한 생명의 세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매마른 빈들이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 빈들에 오신 주님

이때는 세례요한이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슬픔과 허무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모두는 먹을 것이 없었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소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도 제안하는 냉정함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곳은 빈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이 우울하고 절망적이며 냉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막6:34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과 안타까움과 사랑의 임재가 있는 이 현장은 비록 빈들이었으나 가장 풍요한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빈들은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며 빈들은 기적의 무대입니다. 빈들에서 슬퍼하지 말고 빈들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간 가나안도 빈들과 같았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걸었던 광야도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은 결국 충만한 은혜와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삭막하고 냉정하며 희망 없는 빈들 같은 우리 삶의 자리로 임재하십니다.

2. 빈들에 베푸신 능력

일부 신학자들은 한 어린이의 헌신에 군중들이 도시락을 내놓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해석은 정확성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요 6:26에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의미를 파악 못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의 이적은 그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후에 주님은 다시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려는 자기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빈들을 풍요의 현장되게 하는 것은 자기희생을 통해 세상의 양식이 되시려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흑암과 공허의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현장이 되고 우리 주님께신 빈들은 풍요한 축제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 현실에 대한 감사, 자기희생의 실천으로 이루셨습니다.

3. 빈들에 나타난 만족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모임에는 현실 정치의 잔혹함에 치를 떠는 사람, 어이없는 현장에서 사라진 의미 세례 요한이 아까워서 통곡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어 견디기 어려운 사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마을로 사람들을 흠여지게 하자는 사람, 계산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제자들도 군중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만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입니다. 특수한 민족, 특별한 계층과 신분의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타나 결실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시는 19절의 장면입니다. 먹을 사람은 광야에 가득한데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기적은 감사하는 주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9시	최종국 목사	김승록 장로	III 오후 2시	현종필 목사	김승록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김혜언 장로			

입례송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시 117:1 ...	인 도 자
* 찬 송	14(1, 4절)...	* 신앙고백		다 함 계
* 경배와 찬양		기 도		말 은 이
* 송 영	4	환영과 축복		찬 양 팀
찬 송	86 ...	교회 소식		인 도 자
성경 봉독	마14:14-21...	성경 봉독	마14:14-21...	말 은 이
성도의 교제		찬 양		찬 양 대
봉헌		설 교 ...	“빈들에서 만난 풍요”...	손달익 목사
* 봉헌송	634...	결단의 기도		다 함 계
* 봉헌기도		봉 헌		다 함 계
찬 양		* 봉헌기도		설 교 자
새가족 환영		* 파 송		찬 양 팀
설 교 ...	“빈들에서 만난 풍요”...	* 축 도		설 교 자
* 찬 송	325...	* 후 주		찬 양 팀
* 축 도				
* 주기도송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전지희	김진이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이주희	윤주일	3부 예배 신디시스트	이요한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마 14:19)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조현정				

찬 양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오후 4시30분	최종국 목사	옥종호 집사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시 89:1	인 도 자
찬 송	20	다 함 계
기 도		옥종호 집사
찬 송	204	다 함 계
성 경	딤후 3:14-17	인 도 자
성경대학수료식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배우고 확산하고 실천하라”...	손달익 목사
성경암송대회 시상식		말 은 이
* 찬 송	455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수 요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I 오전 11시	현종필 목사	송민정1 권사
II 오후 7시	현종필 목사	이건희 권사

성 경	단 3:14-2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현종필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박수강·김복희2·신아령
설 교	손달익, 김익환 목사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찬 양	찬 양 팀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